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한다”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강남YMCA강당서 8일 개강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의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9월 8일(월) 오후 2시에서 개강한다. 장소는 서울 YMCA강당.

이번 학기 세미나는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추석기간인 9월 15일을 제외한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열린다.

세미나 진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 실시된다. 제 1교시에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진행되며 제 2교시에선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이슈를 염두에 두고 ‘교회와 국가’라는 세미나 주제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명사 등 다양한 강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세부 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허영 연세대 교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한완상 방송대 총장), 교회와 경제질서(송자 명지대 총장), 교회와 바른 선거(김상철 한미우호협회장·변호사), 독일통일에 미친 독일교회의 역할(박종화 기장총무),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조창호 귀환용사),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이영덕 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이다.

여야 3당 대통령 후보들이 맡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의 강의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9월 29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10월 6일, 김종필 후보가 10월 13일에 각각 있을 예정이다.

| 실시일    | 제1 교시<br>14:00 - 15:30    | 제2 교시<br>15:50 - 17:20              |
|--------|---------------------------|-------------------------------------|
| 9. 8.  | 로마서강해<br>이종윤 목사<br>(서울교회)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br>허영(연세대 교수)       |
| 9.22.  |                           |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br>한완상(방송대 총장) |
| 9.29.  |                           | 교회와 국가의 관계<br>이회창(신한국당 대선후보)        |
| 10. 6. |                           | 교회와 국가의 관계<br>김대중(국민회의 대선후보)        |
| 10.13. |                           | 교회와 국가의 관계<br>김종필(자민련 대선후보)         |
| 10.20. |                           | 교회와 경제질서<br>송자(명지대 총장)              |
| 10.27. |                           | 교회와 바른 선거<br>김상철(한미우호협회장, 변호사)      |
| 11. 3. |                           | 독일 통일에 미친 독일 교회의 역할<br>박종화(기장총무)    |
| 11.10. |                           |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br>조창호(귀환 용사)   |
| 11.17. |                           | 21C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br>이영덕(정신문화연구원장) |

### 새 예배당 소식

#### 구청 굴토심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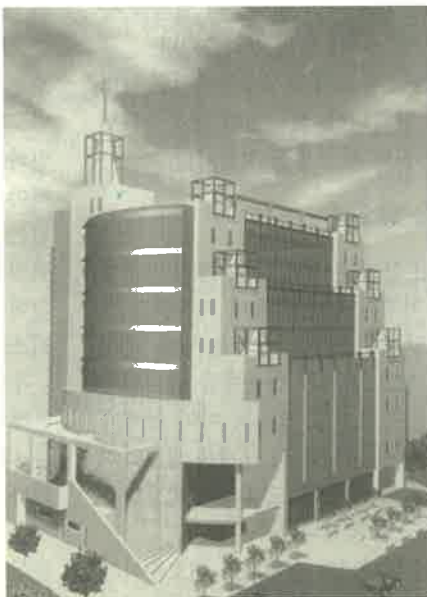
새 예배당에 대한 구청 굴토심의가 통과됐다.

5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서울교회 새 예배당 굴토심의에서는 설계를 맡은 정림건축과 평화엔지니어링사의 굴토설계가 건축상 하자가 없으며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고 설계대로 통과됐다.

#### 서울교회 명의 등기부 등본 교부

8월 초 대한기독교감리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등기등본을 인수한 우리 교회는 토지 등기를 마치고 3일 서울교회 명의로 된 새 등기부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완전한 서울교회 명의로 새 예배당 신축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우리 교회는 종교법인으로 100%비



과세 수혜대상이어서 등기이전으로 인한 세금은 전액 감면받았다.

### 9월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예배 절차

**봉헌** 주일 I·II·III부예배 헌금수납은 기도를 인도한 목사 또는 장로가 성찬상 앞에서 진행한다. 인도자와 기도자는 위임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을 후 모든 성도와 함께 회중석에 앉아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

**II부 예배 시 2층예배실** II부예배 시에는 2층 예배실에도 목사 한 분이 강단에 서서 1층 예배실과 동시에 인도한다. 2층 예배실에서의 헌금수납은 인도 목사 또는 장로가 맡는다. 2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1층 예배실의 순서를 따른다. 인도 목사 혹은 장로는 위임목사의 봉헌기도 후 모든 성도와 함께 회중석에 앉아 말씀을 겸손히 받는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8장 30 ~ 35절

# 에발 산과 그리심 산

‘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와 중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와 언약케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와 중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8:30 - 35).



이종운 목사

구약성경 중 율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는 저주와 축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가득한 축복은 크게 조건 없는 복과 조건이 따르는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축복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요...순종치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 1.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아이 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을 각각 열두 지파로 나누어 그리심 산에서는 열두 가지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열두 가지 저주를 외치게 하고 온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케 했습니다(신27장). 세겜땅에 있는 이 두 산은 지금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옥하고 푸른 숲과 저주받은 황폐한 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다는 이 크고 중대한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진리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얻은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나 아간의 작은 죄로 인해 참패를 당한 아이 성에서의 교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사들과 왕들의 흥망성쇠가 이 진리에 기인하였고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나 귀환의 복을 누린 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망한 사건 등도 결국 군사력이나 정치적 힘이 크고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 2. 에발 산에 단을 쌓으라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온 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 모세가 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낭독했습니다. 이같은 일을 하기 전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한 것으로 제단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단을 세울 때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동시에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희생 양이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에발 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제단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속죄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단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로부터 천 년 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 위에 그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장)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셨으니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가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참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발 산에 세운 제단은 돌단으로 하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것으로 할 것(신27:5-6)을 명령했습니다. 인위적인 기술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본주의를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외쳤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단은 저주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종교적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을 통해 하나님께 오려 했던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에발 산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단 앞에 희생제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이 되며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에 계속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가족이 되고 보니

## “이제 내가 꿈꾸는 것”

심상필(새가족, 4교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골2:7)

언젠가 나와 같은 직장에서 늘 만나는 어떤 집사님이 내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왔다. 사실 그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노라”고 얼버무렸다. 그 집사님은 호감이 갈만큼 생활 전반이 신실한 분이셨다. 그 분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나를 전도 대상으로 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집사님으로부터 서울교회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꺾전으로 흘려 보냈다.

뿌리가 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며 교회를 출석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출석하던 성도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충격과 좌절 속에서 힘들어 하며 오랜 시간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채 허비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고 넓은 품으로 다시 불러 주셨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강남대로를 지나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교회의 간판을 본 순간 교회출석을 권유하던 집사님의 말이 생각났다. 남편은 나보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늦었지만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때는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들과 기도회를 열 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출석을 않는 동안 ‘이래서는 안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두 달 전 서울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이제 막 새가족부의 교육을 마쳤다.

새가족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어떤 계기로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면 어색하기 마련인데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분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도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두 달 동안 우리 가족에겐 변화가 있었다. 예전의 상처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던 남편은 이제 평안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내 마음 속에는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나누고픈 열정이 생겼다. 내가 받았던 것처럼 이제 서울 교회에 오는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내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내

권유에 못이겨 뒤늦게 등록한 우리 딸도 이제는 예전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찬양대원의 대열에 서고 싶다고 한다.

그동안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세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지... 아직 교회에 안 나오는 두 아들도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젠 예수를 주로 받은 신앙이 서울교회에서 뿌리를 박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을 나누는 봉사자가 되는 것, 우리 다섯 식구가 한 예배당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꿈꾸고 있다.

함께 묵상해 보는

탁아부 9월의 찬송

### “난 괜찮아요”

비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탁아부에서는 9월 21일(주일) 탁아부 I·II부 예배 후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엽니다.

일본 KOSTA에 참석하고서

## “일본도 보아야 하리라”

정치은(청년부 회원)

일본에서 열린 KOSTA에 청년부 회원 세 명이 참석했다.

KOSTA는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인 유학생 수양회로 KOREAN STUDENT ABROAD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회는 특히 해외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펴고 있으며 수천명의 선교 헌신자들을 내보내는 ‘선교한국운동’과 그 정신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KOSTA대회는 북미에서 시작되어 1988년 이래 매년 세계 주요 국가를 돌며 개최된다. 5회째를 맞는 올해는 일본에서 열렸고 우리는 이 수양회에 참석했다.

97 KOSTA JAPAN은 ‘거룩과 능력’이라는 주제로 일본 치바에 있는 동경기독교학원에서 8월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특히 거룩함이 사모되고 능력이 요청되는 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 KOSTA JAPAN에는

1300여명의 한국인유학생, 재일교포,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150여 명의 일본인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신 비전을 통해일본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천호동 윤락가 한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열고 갖가지 어려움과 수모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것도 내전이 벌어진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 세네갈의 선교사님, 필리핀과 도미니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등 여러 분들의 간증은 인상적이었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또 일본 선교의 상황과 일본 민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돕

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절실하게 갖게 되었다.

KOSTA 참석을 격려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이런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도한다.

### 스데반회원 및 피택안수집사 가족수련회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 회에서는 10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간 연례 수련회를 개최한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피택안수집사 가족도 함께 참석하게 된다.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쓰레기는 분리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일은 이제 재론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고 생활화된 이야기다. 그런데... 주일에 각 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은 분리하는 데 누군가의 손이 한 번 더 필요하다. 좀더 철저히 분리처리하여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겠다.

“쓰레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하고 부득이 생긴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서 버립니다. 또 환경보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도 가급적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간식과 절제의 함수관계는?

주일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하는 옥담층에는 봉사자들을 위해 교회가 마련한 점심식사가 준비돼 있다. 자원하여 헌금하는 성도와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식사로 각 부서별 간식은 현격히 줄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부서별 풍성한 간식 잔치(?)가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여 교회안팎에서 조심스런 눈길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절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건축을 위한 정성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세예배당 건축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대지대금과 건축비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것이지만 인간이 해야 할 100%의 헌신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먼저 허리띠를 조이고 과부의 엽전 두 렵돈을 드리는 정성을 모읍시다.”

음악교실 개강... 이번 주엔 성경대학도

4일(목) 음악교실이 개강했다. 첫 강의에 앞서 가진 개강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호흡법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 이날 좀더 성숙하고 정성스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열기가 강의실에 가득했다.



서울성경대학 제 2학기 교과과정표(9~12월)

| 강좌   | 요일 · 시간    | 강사     | 개강일    |
|------|------------|--------|--------|
| 마가복음 | 월요일 오전 10시 | 이순환 목사 | 9월 8일  |
| 베드로서 | 월요일 오후 8시  | 김명헌 목사 | 9월 8일  |
| 아가   | 화요일 오전 6시  | 박귀환 목사 | 9월 9일  |
| 다니엘  | 화요일 오후 8시  | 이성득 목사 | 9월 9일  |
| 욥기   | 목요일 오전 6시  | 이중윤 목사 | 9월 11일 |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반, 베드로서반, 아가반, 다니엘반, 욥기(아담)반 등이 각각 개강한다.

미처 등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등록신청은 개강일에도 접수한다. 문의는 사무국에 하면 된다.

※ 순례자 컬럼 ※

자기 우상을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망하게 된다고 선포해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도 없거니와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다고 복을 누린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우상, 명예우상, 쾌락우상, 심지어 자기우상까지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자. 자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나 종교적 헌신과 봉사가 결국 자기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같은 것들을 토해 버리실 것이다.

모든 우상, 특히 자기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동정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김학권 장로 · 이영숙 권사 가정과 왕경래 · 김정희 집사 가정에서 제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 4장 19절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           |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 『날푸른 초장』  |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 아세이방송(HLAZ 1566KHz)     | 『라디오 강단』  |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                         | 『새벽의 강단』  |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2.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